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9: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 실천

『신앙감정론』 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아홉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45~248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운다. 신앙감정이 사람을 신앙 활동에 오래 머물게 하고 예배의 겉 의무에 열심을 내게 해도, 그것만으로 참된 신앙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곧바로 반대쪽 오류도 바로잡는다. 최근 사람들이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설교 듣기에 시간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그 신앙감정을 깎아내린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한다. 안나, 초대 교회, 다니엘, 다윗, 시편 기자들이 보여 주듯 참된 은혜는 예배와 말씀을 기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에게도 같은 열심이 나타난다. 구약 이스라엘, 바리새인, 이사야 58장의 백성, 에스겔의 청중, 헤롯, 돌밭 청중이 그 예다. 끝으로 에드워즈는 경험을 증거로 든다. 로마 교회의 은둔 수행자들, 그리고 그가 이웃으로 지켜본 한 유대인의 헌신이다. 결론은 이렇다. 열심의 '양'은 참과 거짓을 가르지 못한다.

🪪 표지 카드

표지 9(소극): 신앙감정 때문에 신앙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쓰고 예배의 겉 의무에 열심을 내도, 그것이 참된 은혜의 확실한 표지는 아니다.

참된 은혜는 분명히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성경과 경험이 모두 이를 보여 준다. 참된 성도와 외성자에게 함께 나타나는 것은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절별 정리

📜 1. 명제: 많은 시간과 열심은 '확실한 표지'가 아니다

에드워즈는 장의 첫 문장에서 다룰 표지를 정한다. 그것은 신앙감정이 사람을 신앙적인 일에 오래 머물게 하고 예배의 외적 의무에 열심히 헌신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신앙감정(affection)이란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강하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에드워즈는 이 표지를 '거짓의 증거'라고 하지 않는다. '참의 증거'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확실한 표지는 아니다”이다. 이 장은 2부 전체의 원리를 따른다. 그 원리는 '참된 성도에게도, 위선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장 안에서 그는 양쪽 극단을 모두 다룬다.

1. 열심과 시간 투자는 판단 근거가 아니다
2. '거짓'의 증거도 '참'의 증거도 아니다
3. 2부 전체의 원리를 따른다
4. 양쪽 극단을 함께 다룬다

📜 2. 먼저 바로잡기: 신앙 활동이 많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에드워즈는 먼저 당시 비판자들을 겨냥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설교 듣기에 시간을 많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앙감정을 의심했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매우 부당하다”고 말한다. 성경은 참된 은혜가 이런 일들에서 기쁨을 얻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 드리는 기도를 기쁨으로 감당했다.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가 많다는 사실은 결코 결격 사유가 아니다.

1. 신앙 활동이 많다고 의심하면 부당하다

3. 안나: 밤낮의 금식과 기도
4. 초대 교회: 날마다 모여 찬미함
5. 다니엘·다윗: 정해진 시간의 기도

누가복음 2:37

안나의 밤낮 기도, 은혜가 낳는 오랜 헌신의 예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도행전 2:46-47

초대 교회가 날마다 모여 기쁨으로 찬미함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니엘 6:10

하루 세 번의 기도를 기쁨으로 감당한 다니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편 55:17

저녁·아침·정오에 부르짖는 다윗의 규칙적 기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 3. 참된 은혜는 찬양·말씀·예배를 사랑하게 만든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조차 아름답다.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만든다. 시편 84편이 그 절정이다. 시인은 주의 궁정을 사모하다 못해 쇠약해진다. 그에게는 그곳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 날보다 낫다. 에드워즈는 여기서 “이것이 참된 은혜의 본질”이라고 못 박는다. 예배를 향한 사랑은 은혜의 본래 모습이다.

1. 은혜는 찬양을 기쁨으로 만든다
2. 복음이 '즐거운 소리'가 된다
3.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워진다
4.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된다
5. 주의 궁정의 하루가 천 날보다 낫다

> **시편 135:3**
>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 찬양함
>
>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 **시편 147:1**
> 찬양은 선하고 마땅하다, 찬양의 기쁨
>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 **시편 89:15**
> 복음이 즐거운 소리가 됨
>
>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 **이사야 52:7**
>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움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편 26:8

주의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함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7:4

평생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길 구함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1-7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영혼, 예배 사랑의 절정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시편 84:10

주의 궁정의 하루가 천 날보다 나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참된 은혜의 본질이다.”

📜 4.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도 같은 열심을 보인다: 성경의 예

이제 반대편을 다룬다. 신앙 활동을 겉으로 많이 하고 거기에 열심히 헌신해도, 그것이 은혜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도 같은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향(inclination)이란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말한다. 구약 이스라엘은 월삭, 안식일, 대회와 성회로 모였고 손을 펴고 많이 기도했다. 그런데도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웠다.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 이사야 58장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에스겔의 청중은 말씀을 듣기는 즐겼지만 행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예언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정도였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기쁨으로 들었다. 요한의 다른 청중도 잠시 그 빛 안에서 즐거워하려 했다. 돌밭 같은 마음의 청중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듣고 즐겨 모이는 것조차 위선자에게 가능하다.

1. 같은 성향이 은혜 없는 자에게도 있다
2. 이스라엘의 성회를 하나님은 미워하셨다
3. 바리새인: 긴 기도, 주 2회 금식
4. 말씀을 즐겨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5. 헤롯과 돌밭 청중도 기뻐했다

> **이사야 1:12-15**
> 성회와 많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스라엘의 예배
>
>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사야 58:4

금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짓 열심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 58:2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즐거워하는 듯한 백성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에스겔 33:31-32

말씀을 노래처럼 즐기되 행하지 않는 청중

31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마가복음 6:20

요한의 설교를 기쁘게 들은 헤롯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요한복음 5:35

잠시 그 빛에 즐거워한 요한의 청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마태복음 13:20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 없는 돌밭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 성향은 은혜를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 5. 경험의 증거: 은둔 수행자들과 이웃의 유대인

에드워즈는 성경에 이어 경험으로 같은 결론을 확인한다. 거짓 신앙의 사람도 외적 신앙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다. 과거 로마 교회에는 세상을 떠나 좁은 방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자가 많았다. 이들은 아플 때 찾아오는 사람 말고는 사람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또 수행자(hermit)와 은자(anchorite)라 불리는 이들은 사막과 동굴에 살면서 저절로 자란 풀만 먹었다. 그렇게 명상과 헌신의 훈련에 몰두했다. 에드워즈 자신의 경험도 있다. 그는 몇 달 동안 한 유대인과 벽을 맞댄 옆집에 살았다. 그 유대인은 그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헌신적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에 쏟았고, 때로는 밤을 새웠다. 에드워즈의 요점은 이렇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헌신의 강도나 양은 구원하는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다.

1. 거짓 신앙도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다
2. 로마 교회의 은둔자들은 평생 격리했다
3. 사막과 동굴의 수행자들
4. 밤새 기도한 이웃 유대인
5. 양과 강도는 은혜를 증명하지 못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앙감정(affection)
마음이 하나님과 신앙의 일을 향해 강하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의지의 활동이다.

소극적 표지
참된 은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있어도 참을 증명하지 못하고, 거짓도 증명하지 못한다.

외적 의무
기도, 예배 참석, 금식, 설교 듣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이다.

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성향(inclination)
마음이 어떤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우는 경향이다.

위선자
참된 은혜 없이 겉으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다.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 있다.

수행자·은자(hermit, anchorite)
세상을 떠나 사막이나 동굴에서 홀로 살며 명상과 금욕에 몰두한 사람들이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는 기도, 찬양, 말씀, 공적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게 만든다.

- 그러나 이스라엘, 바리새인, 헤롯, 돌밭 청중, 은둔 수행자, 이웃 유대인처럼 은혜 없는 사람도 같은 열심을 보인다.
- 따라서 외적 열심과 시간 투자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확실한 표지가 되지 못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9편 ·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 표지 9·10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